



메타 컴퓨트 사업 추진, AI 투자 축소보다 수익화 전략

Tech&Stock Weekly | 2026.07.03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메타(META.US): 메타 컴퓨트 사업 추진, AI 투자 축소보다 수익화 전략

- 메타가 자체 구축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GPU 컴퓨트 용량을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는 클라우드/컴퓨트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됨. 모델 접근권과 컴퓨트 용량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체 AI 모델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제3자 모델까지 제공하는 AWS Bedrock 유사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음
 - 메타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비용 및 ROI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보유 인프라를 외부 고객용 AI 클라우드/컴퓨트 서비스로 수익화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초기 주가 반응은 긍정적이었음.
 - 반면 해당 소식은 AI 인프라 과잉투자 우려를 자극하며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주가 급락의 트리거로 작용. 그러나 이번 케이스를 AI Capex 축소 신호로 단정하기보다는, AI 투자 ROI를 높이고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메타는 AI 사업 비전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으나, 최근 최상위 모델/API 출시 지연 및 AI 에이전트 개발 속도가 예상 대비 지연되면서 AI 전략의 단기 성과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커진 상황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내부 AI 제품과 모델 개발만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ROI를 단기간에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잉여 또는 단기적으로 활용 여력이 있는 컴퓨트 용량을 외부에 제공해 새로운 매출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여기에서 확보되는 수익은 향후 AI 시스템 구축 및 추가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유사한 사례로는 스페이스X의 데이터센터 임대사업을 들 수 있음. 스페이스X는 엔트로픽 및 구글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계약의 합산 연환산 매출액은 260억 달러 수준. 이는 현재 AI 컴퓨트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GPU 인프라에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스페이스X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내부 AI 모델 및 서비스 활용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외부 고객용 컴퓨트 서비스를 통해 인프라 투자 회수와 추가 투자 자원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해석됨
- 따라서 메타발 소식을 AI 투자 축소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오히려 AI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수익화 전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전망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신호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오픈AI(비상장): 미국 정부에 지분 5% 제안

- 오픈AI가 미국 정부에 회사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FT가 보도. 정치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
- 지난 3월 마감된 펀딩 라운드에서 받은 밸류에이션 8,520억 달러 기준, 5% 지분 가치는 약 426억 달러 수준
- Sam Altman은 트럼프 행정부와외의 초기 논의에서 정부 투자 기구를 만들어서 주요 AI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는 구상을 처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 이러한 개념을 제시 후 1년 이상의 논의 끝에 올해 4월 구체화된 제안은 오픈AI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AI 개발사 각각의 지분 5%씩을 정부가 보유한다는 내용. AI 기업의 성장을 포착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대중에게 분배하는 'public wealth fund' 설립을 제안.
-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미국 정부의 주요 AI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AI 모델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취약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국 오픈소스 모델의 부상도 배경 요인. 중국 모델이 일부 최상위 미국 모델과 거의 대등한 성능이면서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부각됨
- 다른 주요 AI 기업들이 오픈AI 제안에 동의할 지는 불분명함

AI/플랫폼

알파벳(GOGL.US): 컴퓨트 부족으로 메타의 Gemini 사용량 제한

- 구글이 메타의 Gemini AI 모델 사용에 제한을 걸었으며, 원인은 메타가 원하는 만큼의 컴퓨팅 용량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 제한 조치는 여러 고객사에 적용됐으나 메타가 특히 큰 영향을 받음. 구글 클라우드 부문은 지난 3월경 메타에 Gemini 용량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로 인해 메타의 일부 내부 AI 프로젝트가 지연·중단됨. 이에 메타는 직원들에게 AI 토큰을 더 효율적으로 쓰라는 지침까지 내림. 메타는 고객 서비스, 광고주 챗봇, 코딩, 유해 콘텐츠 삭제와 사기 탐지 같은 안전 프로세스 자동화에 Gemini를 활용해 옴. 자체 오픈소스 Llama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해 채택했던 것으로 파악됨
- 현재는 외부 AI 공급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Superintelligence Labs 산하에서 개발한 신규 내부 모델 Muse Spark로 워크로드 이전을 가속 중. 메타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AI 지출을 최우선 과제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초 전체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7,000명을 AI 관련 직무로 재배치함.
- 공급자인 구글 역시 컴퓨트가 부족한 상태. 6월 초 스페이스X와 2029년 중반까지 총 3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맺고 월 9.2억 달러를 지불해 엔비디아 GPU 110,000장에 대한 접근을 확보. 구글은 올해 1,800억 달러 이상의 설비투자를 집행 중임에도 메타 같은 초대형 고객마저 배급제로 운영하는 상황으로, 인프라 구축 속도가 소비 증가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로 해석

애플(AAPL.US): CXMT·YMTC와 메모리 조달 협상 및 대정부 로비

- 애플이 중국 최대 DRAM 제조사 CXMT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진행 중. 애플은 상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CXMT 조달이 향후 규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이르면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됨
- 팀 쿡 CEO가 직접 스킷 베센트 재무장관을 포함한 행정부 인사들에게 접촉해 중국 반도체 업체와의 거래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함. CXMT와 NAND 제조사 YMTC는 최근 갱신된 국방부 1260H 리스트에 중국군 연계 기업으로 등재된 상태. 다만 1260H는 평판·계약상 리스크를 수반할 뿐 상업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아, 애플이 구매에 공식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다만, 애플이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CXMT가 상무부 Entity List에 추가되는 시나리오로, 이 경우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이 발동됨
- 애플은 정치적 반발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메모리를 중국 내수용 모델에만 제한적으로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행정부 일부 인사들은 애플의 요청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국 반도체 기업과의 상업적 관계 확대에 대한 의회 반발도 있어 백악관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CXMT의 생산능력이 중국 내수 수요에도 못 미쳐 조달이 성사되더라도 원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아마존(AMZN.US): AWS, 10억달러 규모 Forward Deployed Engineering 조직 신설

- 아마존 AWS가 고객사의 AI 시스템 구축·배포를 지원하는 Forward Deployed Engineering(FDE)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조직 규모는 수천 명 수준으로 출발하며, 5~6명 단위 엔지니어 포드가 고객사 한 곳에 상주 배치되어 AI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구조
- FDE 모델은 에이전트 우선, 배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일로 압축, 계약 종료 후 고객 자립을 설계 원칙으로 제시. 엔지니어 파견은 약 45일 단위 배치로 운영될 계획. Allen Institute, Cox Automotive, NBA, NFL, Ricoh, 사우스웨스트항공 등이 초기 고객으로 이미 협업 진행 중이며, NFL은 수 주 만에 NFL Fantasy AI 등 팬 대상 서비스를 출시함
- FDE는 팔란티어가 10여 년 전 만든 개념으로, 최근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AI 도입 가속 수단으로 인력을 고객사 내부에 직접 투입하는 모델로 재부상한 상태. 앤스로픽은 지난 5월 Blackstone, Hellman & Friedman, Goldman Sachs와 AI 서비스 회사를 설립했고, 오픈시도 며칠 뒤 TPC, Advent International, Bain Capital, Brookfield 등과 OpenAI Deployment Co.를 출범시킴. 양사 조인트벤처의 기업가치는 각각 40억 달러(오픈AI), 15억 달러(앤스로픽) 수준
- 구조적 차별점은 자금 조달 방식으로, 오픈AI-앤스로픽이 외부 투자자 기반 조인트벤처를 택한 반면 아마존은 10억 달러 전액을 자체 재무제표에서 조달하며 외부 파트너 없이 진행. 구글도 에이전트 AI 배포를 겨냥한 7억 5,000만 달러 규모 파트너 펀드를 운영 중이나 하이퍼스케일러 중 이런 성격의 조직 신설은 아마존이 최초
- 시사점은 엔터프라이즈 AI 경쟁의 축이 모델-컴퓨트 판매에서 실배포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기업들이 AI 도구는 다수 도입했으나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 전환에 실패하는 간극을 인력 상주로 메워 클라우드 고착도를 높이려는 전략

메타(META.US): 메타 컴퓨트 사업 추진, AI 투자 축소보다 수익화 전략

- 메타가 자체 구축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GPU 컴퓨트 용량을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는 클라우드/컴퓨트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됨. 모델 접근권과 컴퓨트 용량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체 AI 모델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제3자 모델까지 제공하는 AWS Bedrock 유사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음

- 메타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비용 및 ROI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보유 인프라를 외부 고객향 AI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로 수익화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초기 추가 반응은 긍정적이었음.
- 반면 해당 소식은 AI 인프라 과잉투자 우려를 자극하며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추가 급락의 트리거로 작용. 그러나 이번 케이스를 AI Capex 축소 신호로 단정하기보다는, AI 투자 ROI를 높이고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메타는 AI 사업 비전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으나, 최근 최상위 모델/API 출시 지연 및 AI 에이전트 개발 속도 둔화가 보도되면서 AI 전략의 단기 성과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커진 상황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내부 AI 제품과 모델 개발만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ROI를 단기간에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잉여 또는 단기적으로 활용 여력이 있는 컴퓨터 용량을 외부에 제공해 새로운 매출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여기에서 확보되는 수익은 향후 AI 시스템 구축 및 추가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유사한 사례로는 스페이스X의 AI compute 임대사업을 들 수 있음. 스페이스X는 엔트로픽 및 구글과 대규모 AI compute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계약의 합산 연환산 매출액은 260억 달러 수준. 이는 현재 AI 컴퓨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GPU 인프라에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스페이스X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내부 AI 모델 및 서비스 활용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외부 고객향 컴퓨터 서비스를 통해 인프라 투자 회수와 추가 투자 재원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해석됨
- 따라서 메타발 소식을 AI 투자 축소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오히려 AI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수익화 전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전망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적 신호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메타(META.US): AI 프롬프트 기반 미니게임 제작 앱 Pocket 조용히 출시

- 메타가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소형 인터랙티브 앱과 게임을 생성·공유하는 신규 앱 Pocket을 공식 발표 없이 출시함. 사용자가 원하는 경험을 글로 묘사하면 시가 즉시 플레이 가능한 결과물, 'gizmo'를 생성하는 구조
- 앱은 전 세계 사용자가 만든 gizmo를 스크롤하며 즐기는 소셜 피드를 갖췄으며, 터치·기기 기울임 반응, 음악·효과음 재생, 카메라·사진첩 연동까지 지원. 게시 시 리믹스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다른 사용자가 변형 버전을 만들어 재확산하는 UGC 순환 구조를 내장
- Pocket은 올해 초 메타가 Atma Sciences 팀을 영입하고 해당 스타트업의 기술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한 결과물. Atma Sciences가 만든 원조 앱 Gizmo는 iOS·안드로이드 합산 누적 설치 63만 5,000건, 긍정 평가 비율 98%를 기록했으며, Pocket의 화면 구성은 Gizmo와 상당 부분 유사함. 인수 금액은 비공개
- 현재 구글 Play Store에 등재됐으나 미국 등 다수 지역에서는 다운로드 불가한 상태로, 일부 지역 한정 실험 단계로 판단됨. 로그인에는 메타 계정이 필요하며, AI와의 상호작용 데이터는 메타의 AI 개선에 활용되고 지역에 따라 콘텐츠·광고 개인화에도 사용됨
- 이번 출시는 마크 저커버그가 제시해 온 "AI로 인터랙티브 경험을 만들어 공유하는 소셜"이라는 비전의 구체화 사례. 메타는 Meta AI 앱의 이미지 생성, Vibes의 AI 영상, 크리에이터용 편집 앱 Edits의 AI 기능 등 AI 창작 도구를 연쇄적으로 내놓아 왔으며, Pocket은 정적 콘텐츠에서 인터랙티브 콘텐츠로의 확장 시도. 전략 측면에서는 신규 AI 기능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바로 통합하지 않고 독립 실험 앱으로 먼저 검증한 뒤 주력 플랫폼에 이식하는 메타 특유의 접근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임

마이크론(MU.US): 마이크론 CEO "고객사의 가격 후려치기가 메모리 부족 초래"

- 마이크론 CEO 산제이 메호트라가 현재의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제조사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함. 최근 수년간 일부 고객사가 협상에서 가격을 공격적으로 압박했고, 이것이 업계의 생산능력 투자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논리. 구체적 수치도 제시됨. 2023년 마이크론의 판가는 이전 수준의 3분의 1까지 하락. 이로 인해 마이크론을 포함한 메모리 공급사들의 매출총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업계 전반의 투자 여력이 소진됨. 그 상태에서 AI발 수요 급증을 맞아 현재의 공급 부족이 촉발됐다는 주장
- 공급 부족은 2027년 이후까지 장기화될 전망. 신규 반도체 공장은 착공에서 양산까지 수년이 걸리고, 차세대 메모리는 제조 공정 복잡도가 크게 높아져 단기 증설이 어렵기 때문
- 대응책으로 마이크론은 제조·연구개발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아이다호주 보이시와 뉴욕주 시러큐스에 신규 메모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진척이 가장 빠른 보이시는 내년 중반 첫 칩 출하 후 증산에 들어갈 예정. 보이시 부지에는 최종적으로 공장 2개동이 들어설 계획
- 발언의 표적은 사실상 애플로 해석되는 상황.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지난주 최고사업책임자 수밋 사다나도 특정 고객사들이 2023년 침체기를 이용해 가격을 압박했고 그 결과 업계 투자가 위축됐다는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음. 공급망 협상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애플이 지목 대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엔트로픽(비상장): 미 상무부, 엔트로픽 Claude Fable 5·Mythos 5 수출통제 18일 만에 전격 해제

- 상무부가 엔트로픽 Claude Fable 5와 Mythos 5에 부과했던 수출통제를 철회함. 산업안보국(BIS)이 두 모델의 기술 유출 위험을

재평가한 결과이며, 수출·재수출·국내 이전에 대한 라이선스 요건이 모두 해제됨

- 이번 조치로 6월 12일 발동됐던 통제가 18일 만에 종료됨. 당시 정부는 국가안보 권한을 근거로 미국 내외를 불문한 모든 외국인의 접근 차단을 지시했고, 외국 국적 앤스로픽 직원까지 대상에 포함됨. 앤스로픽은 출시 사흘 만에 두 모델을 전면 차단해야 했으며, 사전 경고 없이 90분의 유예만 주어진 것으로 알려짐. 통제 발동의 배경에는 Fable 5의 탈속 기법 시연이 있었음. 아마존 CEO 앤디 재시가 해당 기법에 대한 우려를 행정부에 직접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정황이 제기된 상태. 앤스로픽은 해당 기법이 이미 알려진 경미한 취약점 소수를 식별하는 수준이었다며 위험성을 낮게 평가함
- 재배포는 안전장치 보강을 조건으로 이뤄짐. 앤스로픽은 문제가 된 우회 기법을 99% 이상 차단하는 신규 분류기를 추가했고, 상무부 산하 AI 표준혁신센터(CAIS)가 기존·신규 안전장치를 모두 검증함. 차단된 요청은 Claude Opus 4.8로 우회 처리되며, 강화된 필터가 정상 요청까지 차단할 지는 미정
- Fable 5는 수요일부터 Claude.ai, Claude Code, Claude Cowork 및 API 플랫폼에서 전 세계 사용자에게 복원됨. 7월 7일까지 Pro-Max-Team-일부 Enterprise 요금제에서 주간 사용 한도의 최대 50%까지 제공되며, AWS-Google Cloud-Microsoft Foundry 재등재도 예정
- 다만 조건부 성격이 명확함. 상황 변화나 앤스로픽의 약속 불이행 시 통제를 재부과할 권리를 정부가 유보한다는 단서가 서한에 명시됨

오픈AI(비상장): 미국 정부에 지분 5% 제안

- 오픈AI가 미국 정부에 회사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FT가 보도. 정치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목적.
- 지난 3월 마감된 펀딩 라운드에서 받은 밸류에이션 8,520억 달러 기준, 5% 지분 가치는 약 426억 달러 수준
- Sam Altman은 Trump 행정부와 초기 논의에서 정부 투자 기구를 만들어서 주요 AI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는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 이러한 개념을 제시 후 1년 이상의 논의 끝에 올해 4월 구체화된 것으로 오픈AI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AI 개발사 각각의 지분 5%씩을 정부가 보유한다는 내용. AI 기업의 성장을 포착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대중에게 분배하는 'public wealth fund' 설립을 제안.
-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미국 정부의 주요 AI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AI 모델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취약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국 오픈소스 모델의 부상도 배경 요인. 중국 모델이 일부 최상위 미국 모델과 거의 대등한 성능이면서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부각됨
- 다른 주요 AI 기업들이 오픈AI 제안에 동의할 지는 불분명함

팔란티어(PLTR.US): 팔란티어 CEO "토큰 과금 모델은 완전히 잘못됐다" 주장

- 팔란티어 최고경영자는 앤스로픽·오픈AI의 토큰 기반 과금 모델에 대해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며 "미국 기업들의 기본 인식은 토큰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 가치도 못 얻은 채 지식재산만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
- 프런티어 모델들이 "완전히, 무책임하게 과대 판매됐다"고 주장하며 토큰 소비 극대화 관행(토큰맥싱)을 부의 이전에 빚대 공격
- 다만, 이러한 발언은 6월 29일 발표된 엔비디아와의 소버린 AI 운영체제 제휴와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 팔란티어는 폐쇄망 Blackwell Ultra 인프라에서 엔비디아 개방형 Nemotron 모델을 구동해 정부 기관·핵심 인프라가 모델 가치와 학습 데이터를 자체 소유하는 구조를 제공 하려 하고 있음

우주/로봇

스페이스X(SPCX.US): 소송·주민 반발에 직면한 멤피스 Colossus 데이터센터 인근에 Starlink 반값 제공

- 스페이스X가 테네시주 멤피스 일대 주민 대상으로 Starlink 인터넷 요금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프로모션을 개시함. 표준 요금 월 55~130달러가 27.50~65달러로 낮아지며, 신규 가입자는 단말기 선불 비용도 면제됨. 할인은 지인·가족과 공유 가능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자동 적용됨. 적용 지역은 멤피스와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 콜리어빌 일대의 적격 주소지로 한정되며 종료 시점은 미공개
- 요금 인화와 병행해 스페이스X는 멤피스 재생 폐수처리장 건설 재개에도 합의함. 해당 시설은 Colossus와 테네시강 유역의 폐수 정화를 담당할 예정이나, 규제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완공까지 수년이 소요될 전망
- 위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있음. 스페이스X는 올해 초 xAI를 인수하며 멤피스와 사우스헤이븐의 Colossus 데이터센터 운영 주체가 됐고, 해당 시설은 가스터빈 발전으로 가동되며 대기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상태. 법적 분쟁도 진행 중. NAACP(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는 지난 4월 xAI가 허가와 대기오염 방지 설비 없이 수십 기의 가스터빈을 불법 가동해 Clean Air Act를 위반했다며 제소했고, 질소산화물·미세먼지 허용치의 반복 초과가 소장에 적시됨

아마존(AMZN.US): Leo, 초기 상용 서비스 개시 요건 충족

- 아마존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 Leo의 연내 초기 상용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위성 수를 확보했다고 발표함. ULA의 Atlas V 로켓이 목요일 새벽 케이프커내버럴에서 위성 29기를 추가 배치하며 궤도 내 총 위성 수가 396기에 도달함. 신규 위성들은 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 및 정상 작동이 확인된 상태. 운용 고도 392마일로의 궤도 상승 작업이 남아 있으며, 이 과정 완료 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
- 이번 발사는 아마존이 예약한 Atlas V 8회 임무의 마지막으로, Atlas V는 이번을 끝으로 Leo 배치에서 퇴역함. 향후 발사의 주력은 ULA의 차세대 Vulcan Centaur로 전환되며, 초기 임무 기준 1회당 위성 40기를 탑재해 Atlas V의 29기 대비 수송 능력이 확대됨
- 블루 오리진 New Glenn의 공백은 다중 발사체 계약으로 흡수하는 구조. 5월 지상 연소 시험 중 발사대 폭발로 New Glenn을 통한 위성 48기 수송 일정이 무기한 지연됐으나, 아마존은 2022년 ULA-Arianespace-블루오리진 3사와 대규모 발사 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로 단일 공급사 의존이 아님
- 경쟁사 발사 서비스까지 동원됨. 아마존은 3사 계약에 더해 스페이스X의 Falcon 9 발사 서비스를 추가 구매해 자사 위성 인터넷의 직접 경쟁자에게 수송을 맡기는 실리적 선택을 한 바 있음. New Glenn은 발사대 재설계와 연내 비행 재개가 진행 중이어서 복귀 시 최대 탑재량 발사체로 재합류할 전망
- 하지만 경쟁 격차는 여전히 큼. 2019년 Kuiper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Leo는 약 7,700기 군집 구축이 목표이나, 4년 먼저 시작한 스페이스X Starlink는 이미 1만 기 이상을 운용하며 2020년부터 상용 서비스 중. 반전 카드는 제조 능력. 아마존은 일 수 기 생산이 가능한 위성 양산 시설을 구축해 둔 상태로, 발사 병목이 해소되면 배치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

테슬라(TSLA.US): 핸들·페달 없는 Cybercab 양산형 오스틴 실주행 시험 개시

-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Cybercab 양산형 차량의 실주행 테스트를 시작함. 현재는 조수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한 형태로 진행 중이며, 테스트 영상이 X에 공개됨. 스케일업 정황도 포착됨. 일부 도시의 주차장에 Cybercab 수백 대가 집결된 모습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로보택시 네트워크 출범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확산된 상태
- Cybercab 디자인 공개 이후 약 2년 만의 진전. 테슬라는 약 1년 전부터 오스틴에서 Model Y 기반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고, 최근 수 주간은 핸들·페달이 장착된 Cybercab 프로토타입을 미국 여러 도시에서 테스트해 옴
- 규제 장벽도 제거 수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지난주 자율주행 시스템 전용 차량에 브레이크 페달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함. 현재 공청 의견수렴 단계이나 연내 확정이 유력해, 무페달 차량의 대량 배치를 가로막던 핵심 규제가 해소될 전망

블루오리진(비상장): 폭발 발사대를 원상 복구 대신 차세대 수직 통합형으로 재설계

- 5월 폭발로 파손된 발사대를 기존과 동일하게 복구하지 않고 재설계된 구성으로 전환하기로 함. 같은 부지를 사용하되 수평·수직 하이브리드 발사 방식을 채택하며, 이는 차기 대형 변형 기체인 New Glenn 9x4용으로 이미 개발 중이던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 CEO 데이브 림프는 연말까지 비행 재개 의지를 재확인함. 신규 구성은 발사 빈도를 높이는 부수 효과도 있다고 주장
- 사고는 5월 28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생함. 4차 발사를 앞둔 New Glenn의 지상 연소 시험 중 기체가 화염에 휩싸이며 로켓이 전소됐고, Blue Origin의 유일한 궤도급 발사대가 크게 파손됨
- 복구 시기는 당초 비판적이었음. 사고 직후 NASA 국장 재러드 아이잭먼은 역대 발사대 재건 사례를 근거로 2028년까지 복구가 늦어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이번 재설계 전환과 연내 복구 목표는 그 전망 대비 대폭 앞당겨진 일정
- 파급은 위성 인터넷 공급망으로도 확산됨. 폭발한 기체는 아마존 Leo 위성 탑재 예정이었고, 아마존은 FCC가 부과한 전체 군집 절반 배치 시한을 앞두고 최근 유예를 받은 상황. AST SpaceMobile 등 다른 위성 사업자들도 New Glenn 발사 용량에 의존하고 있어, 발사대 복구 속도가 저궤도 위성 배치 일정 전반의 병목으로 작용 중

산업재

[연료전지] 퓨얼셀에너지(FCEL.US) 380MW 전력공급 계약 체결

- MCFC 연료전지 기업인 FuelCell Energy(FCEL.US)가 38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
- 30MW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증금이 입금되어 올해 내 공급이 시작될 예정
- 현재 FCEL의 연간 최대 캐파는 100MW이며 2025년 기준 41MW를 가동. 3월 공개한 캐파 확대 계획은 350MW 였으나 데이터센터 관련 파이프라인이 급증함에 따라 6월 최종 확장 목표를 500MW로 상향조정
-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발전에 적합한 연료전지는 퓨얼셀 에너지의 MCFC와 블룸에너지의 SOFC로 한정
- 블룸에너지는 6월 30일 브룩필드와의 파트너십을 기존 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5배 확대
- '25년 11월 출시한 브룩필드 AI 인프라펀드의 일환, 1,000억 달러 배치 목표
- 이미 지난 실적발표에서 파트너십 확대를 예고

[태양광] 미국의 중국산 인버터 제한 조치 영향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외국인 태양광 인버터의 신규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준비중이라 보도
- 표면적 이유는 전력망 안보이지만 AD/CVD, Section 232 등 최근 태양광 정책 기조 고려할 때 중국 밸류체인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해석
- 이미 EU와 일본에서도 중국산 인버터 배제 전략 사용
- 다만 태양광 인버터는 상위 10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중국기업
- 화웨이와 선그로우의 합산 비중이 55%로 10년 연속 글로벌 1,2위 차지
- 미국의 인버터 기업인 엔페이즈에너지와 솔라엠티지는 유틸리티 인버터 비중이 낮아 유틸리티 태양광 인버터에서 영향은 적을 전망
- Section 232는 6월 중 발표된다는 기대감 높았으나 최근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 보도
- 미국에서 여전히 중국 밸류체인 비중이 높은 상황, 현실적인 관점에서 비중국 태양광 밸류체인에 대한 수혜는 지속될 전망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민,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민, 김시연)는 2026년 7월 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